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, 송정희 조사.
한신화(여, 1921년생, 표선면 가시리)

[제보자] 옛날에 콩데기 풋데기 잊어. 콩데기 풋데기가 잊인디 이녁 뜰은 콩 저 풋데기. 풋이 맛 좋주겐. 또 놈 난 뜰은 콩데기 경허난 콩 풋데긴 풋만 풋만 숱안 줘 부난 술지도 안 혀곡 빈데기만 일곡 원 바렌나우가 엊어 가. 놈 난 콩데기난 콩을 자꾸 주난 번들번들번들 콩 먹은 뜰은 막 곱곡, 풋 먹은 뜰은 막 궂어. 게난 뜰 구허레 오난 이. 뜰 구허레 오난

“이거 나 뜰이난 구행 가라.”

허난, 저 뜰을 구해가곡 놈 난 뜰 하도 콩만 먹어노난 막 그냥 술져네 술진 사름 고와. 경 허난 그 사름 구행 가肯. 경허난 이젠 ‘콩데기 풋데기’ 허난 풋데긴 풀지 못허곡 콩데긴 풀안 그런 말이 잊어. (중략)

어디 가멍 놈 난 뜰?라이

“저 굽 터진 항에 ?득 물을 질어 노라.”

경 허난, 굽 터진 항에 만날 물을 질어 놓들 터진 항 ?득아게. 경 허난, 암만 물을 질어봐도 항이 ?득질 안 혀난 이젠 가마귀가 오란

“구렁지라. 구렁지라.”

구렁지는 거 알아지크라? 모르주이. 항 터진 거 막앙지라 말이라.

“구렁지라. 구렁지라.”

허곡, 터진 항을 막앙지라. 막아야 물이 ?득지. 터진 항에 물이 ?득느냐? 경 허난나 난 뜰을 아니 놈 난 뜰인니까. 터진 항에 물을 만날 질어 노민 ?득아. 경 허난 그 못된 년이 터진 항에 물을 ?득허게 질어노렌 헤 동 어디 가 부난. 암만 질어놔 봐도 항이 ?득질 안 혀난 가마귀가 오란

“구렁지라. 구렁지라.”

경 허난, 이젠 항을 턱 웨싼 보난, 창 터진 항이라. 거난 그놈을 이젠 막은 거 라이. 막안. 막아지난 항이 ?득안. 아이고 경 헌 예펜도 잊어낫어.

- 핵심어 : 콩데기, 풋데기, 콩, 풋, 뜰, 항, 물, 가마귀, 예펜